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서초구

생태공원 둘레길 9

야생 동식물의 낙원

걸는구간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우면동 산34-1 등)
걸는거리	1.2km(순환길)
소요시간	1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환경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7년 12월 서울시가 야생동물(두꺼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참나무숲 자연림과 사계절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계곡, 산란과 부화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저수지 등이 있는 공원은 두꺼비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과 서초동 그리고 강남구 양재동에 걸쳐있는 높이 293m의 우면산. 서울 강남권 허파로 불리는 이 우면산 기슭에 자연 야산의 생태를 그대로 복원한 국내 최초의 산림형 생태공원인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 꼭꼭 숨어있다. 이 생태공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저수지를 기점으로 2개의 계곡 주변을 순환하는 숲길을 '생태공원 둘레길'이라 부른다.

산 속 주택가인 향촌마을을 지나 돌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산 그림자 비치는 작은 저수지가 반겨준다. 밭에 물을 대는 용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에는 온갖 습지생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다. 특히 희귀종으로서 보전 가치가 인정된 두꺼비의 산란지이자 집단 서식지로 밝혀져 서울시에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저수지 주변 1320m 길이의 탐방로는 기존 등산로를 그대로 활용해서 우면산의 자연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관찰원은 숲, 나비, 야생조류, 수서생물, 곤충, 풀꽃, 계곡, 염료식물 등 총 15개의 테마로 꾸며졌다. 최소한 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숲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비관찰원을 지나면서 울창한 참나무 숲이 시작된다. 길이 잘 닦여 있고, 경사도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부담이 없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에는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노랑할미새, 박새, 나비,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쑥, 애기똥풀, 홍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등 112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산책의 즐거움과 함께 도심 속 생태계를 관찰하는 재미를 더해준다.



-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양재역 정류장에서 3412번 버스로 환승 후 삼성전자서울R&D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우면산 쪽으로 난 마을의 골목길을 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입구가 나온다.
- ☎ 02-2155-6883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 이용시간 제한 없음
주차장 별도로 없음
화장실, 휴게시설 별도로 없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